

**북스**

Books

정조와 철인정치...1·2

이덕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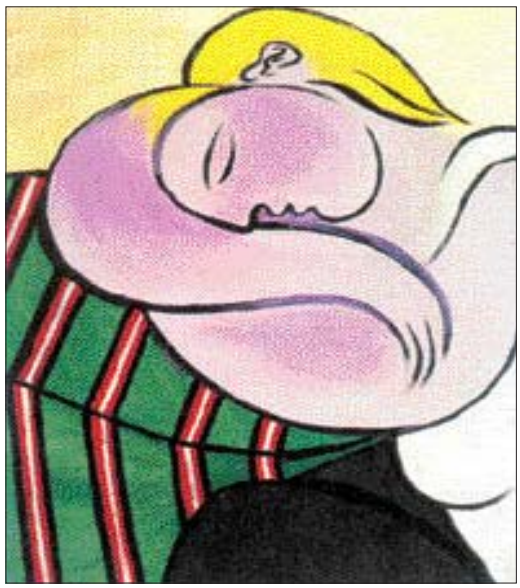


오디피우스와 헬렌보다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지만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며 끊임없는 수양으로 성군이 된 정조, 역사평론가 이덕일씨가 정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열여덟 가지 주제로 살폈다.

두 권으로 구성된 '정조와 철인정치'시대 1, 2'는 사도세자 아들이었던 정조의 난관을 극복하고 영이 된 뒤, 규장각을 세우고 경연에서 당대의 학자들과 학문을 거침없이 논했던 학자군주의 모습, 최고의 무사들을 조련한 무인의 모습 등 정조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또 홍국영 등 정조와 함께 미래를 향해 함께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실었다. <고조원·각권 1만2천800원>

두 권으로 구성된 '정조와 철인정치'시대 1, 2'는 사도세자 아들이었던 정조의 난관을 극복하고 영이 된 뒤, 규장각을 세우고 경연에서 당대의 학자들과 학문을 거침없이 논했던 학자군주의 모습, 최고의 무사들을 조련한 무인의 모습 등 정조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또 홍국영 등 정조와 함께 미래를 향해 함께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실었다. <고조원·각권 1만2천800원>

**명품 도시 '뉴욕의 걸작 100선' 런던 미술 '현장 체험 열정 6년'**



이주현씨가 집필한 '현대 미술의 심장 뉴욕 미술'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5개 미술관의 대표작 100편을 소개하고 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물에 빠진 소녀', 피카소의 '노란 머리의 여인'.

세계 미술의 중심인 뉴욕과 런던의 미술계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50일간의 미술관 체험' 등을 통해 가장 인기 있는 미술 관련 저작자로 꼽히는 미술평론가 이주현씨가 펴낸 '현대 미술의 심장 뉴욕 미술'과 항공사 승무원에서 아트 컨설턴트로 변신한 최선희씨가 쓴 '런던 미술 수업'.

현대 미술의 심장 뉴욕 미술

이주현 지음

'현대 미술의 심장 뉴욕 미술'은 '페트린이나 궁정, 교회의 뒷담화 없이 순수하게 도시 자체의 잠재력으로 미술 도시로의 영광을 피운', 그래서 '자유와 개성, 보헤미안리즘 같은 도시적 가치가 분출하는 도시'인 뉴욕 미술의 근간인 '미술관'의 컬렉션을 통해 뉴욕 미술을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뉴욕의 수많은 미술관 가운데 '대표주자'로 뉴욕현대 미술관(MoMA)과 구겐하임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프리 컬렉션을 선정하고 그 속에서 놓치지 말고 감상해야 할 그림 100점을 골라 자세한 해설을 곁들였다. 수록된 작품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클림트의 '희망 2', 프리다 칼로의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 달리의 '기억의 지속', 리히텐슈타인의 '물에 빠진 소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과 '노란 머리의 여인' 등이다.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 진품을 직접 감상하는 게 최선의 즐거움이겠지만, 생생한 그림 도판에 이 씨의 알기 쉬운 설명이 곁들여진 책장을 넘기다 보면 행복한 '그림 감상 여행'이 가능하다. 앞으로 런던과 북유럽권도 출간 예정이다. <학고재·1만6천500원>

런던 미술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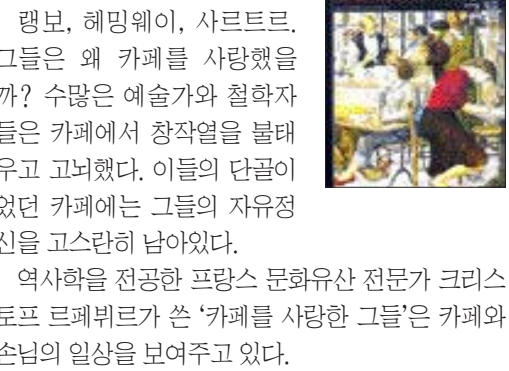
최선희 지음

'런던 미술 수업'은 현재 런던 미술계의 속살을 들여다본 책이다. 항공사 승무원 출신의 미술 애호가 6년간 런던에서 경매회사 인턴사원, 갤러리 큐레이터 등을 거쳐 아트컨설턴트로 자리잡기까지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낸 책이다.

1장에서 런던에 대한 단상을 풀어놓은 저자는 2장과 3장에는 크리스티 경매학교를 거쳐 세계 최대 경매회사로 전 세계 미술품과 예술품의 집결지인 크리스티 경매회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며 겪은 일들을 담았다. 4장에 실린 차이나이즈 컨템퍼러리 갤러리 시절 이야기는 현재 전세계 미술계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미술'의 파도와 세계 흐름에 대처하는 영국 예술인들의 자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런던의 대표 갤러리인 유니언 갤러리에서 일하며 체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서 품으로 부대끼면서 얻은 생생한 정보와 미술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글의 생생함을 더한다. 크리스티 경매학교 고과 과정, 경매장 사람들과 작품 감정 절차 등도 함께 실었다. <아트북스·1만7천원>

**삶과 예술과 사랑이 싹트고 무르익은 곳**

카페를 사랑한 그들 르페뷔르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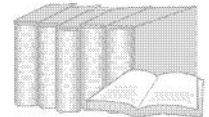


랭보, 헤밍웨이, 사르트르. 그들은 왜 카페를 사랑했을까? 수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은 카페에서 창작열을 불태우고 고뇌했다. 이들의 단골이었던 카페에는 그들의 자유정신을 고스란히 남아있다. 역사를 전공한 프랑스 문화유산 전문가 크리스토프 르페뷔르가 쓴 '카페를 사랑한 그들'은 카페와 손님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카페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예술적 열정과 희망을 찾기도 했다. "내가 좋아했지만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카페를 찾았다. 아

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사색을 즐기기에 적합했으리라. 그러나 카페의 손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헤밍웨이 '파리는 축제다' 중에서) 헤밍웨이는 7년간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몽파르나스에 있는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 파리 생제르맹의 '카페 드 플로르'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서재였고, 마네, 드가, 르누아르는 몽마르트르의 카페를 좋아했다. '짧은 시집의 회상과 초상'의 작가 샹 플리의 작업실도 카페였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에 카페에 들어가 글을 쓴 뒤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카페의 구역지리는 유일한 안식처였고, 작가들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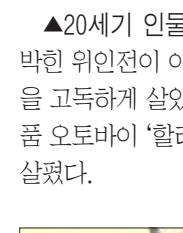
영감을 얻는 창작의 산실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1672년 아르메니아 출신 파스칼이란 사람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광장과 게 드 레를 처음 카페 문을 열었다고 소개한다. 당시 귀족들만이 살롱에 모여 흥차를 즐겼는데 카페가 생겨나면서 귀족, 도시 부르주아, 노동자, 시골 농부할 것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놀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서민과 예술가들이 어우러졌던 프랑스의 유명 카페들을 소개하고 사진과 예술가들의 그림 등을 함께 곁들였다. 또 주로 식료품점과 결합했던 시골의 카페들, 카페 관련 법의 변천사, 프랑스 카페를 소개한 책 목록 등을 부록으로 담았다. <흐영출판·1만3천원> /오공목기자 kroh@kwangju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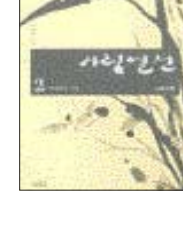
새책



▲사하라 사막 횡단기-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땅=비행기 조종사 출신의 윌리엄 랑게비체가 세계 최대의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다. 사하라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과 함께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크리스문·1만2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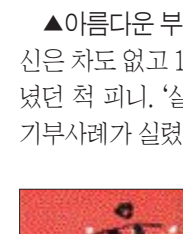
▲20세기 인물 100과 사전=인물의 생몰 연대기를 요약한 틀에 박힌 위인전이 아니다. 저자 정운수씨가 자신의 발명품 때문에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던 '노벨' 같은 인물을 비롯해 문화 아이언이 된 명품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등 20세기를 상징한 100가지 키워드를 살폈다. <숨비소리·1만1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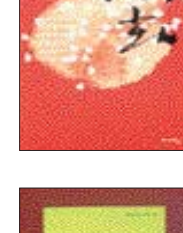
▲시림 열전 2-순례자의 노래=조선대 사학과 이종범 교수와 김동진·김일순·남효운·정영창·김영필·김시습 등 역사가 바로 세우고자 시대의 아픔에 정면 맞선 전기 사립과 실과 향적을 추적했다. 또 시문이 내포하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분석해 각 인물의 내면도 들여다봤다. <아침미술·1만5천 원>



▲타락한 스님의 포용=선사(禪師)이자 명상운동가인 타락한 스님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전한다. 타락한 스님의 법문을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매주 한가지씩, 53가지의 화두를 던지며 지친 현대인들의 삶을 격려한다. <현문미디어·1만2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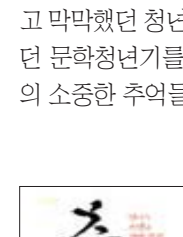
▲아름다운 부자 책 피니=남몰래 4조 원을 기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차도 없고 15달러(1만4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다녔던 책 피니.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기'를 실천했던 그의 성공기와 기부사세가 실렸다. <울푸레·1만5천 원>



▲유이화=장승소설 '도모유기'의 저자 조두진의 장편소설. 임진왜란 당시 전쟁 포로가 돼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서글픈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나라를 위해 억압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괴연 국가만이 절대선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담·9천800원>



▲두두=한국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대표하는 오규원 시인의 유고 시집. 시인이 미처 발표하지 못했던 시 33편과 생전에 발표한 17편을 묶었다. 신경숙·황인숙·하성란·장석남·천은영 등 문화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작가들이 모두 그의 제자들이다. <문학과 지성사·6천 원>



▲사람=삼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작가가 60년 삶을 되돌아 보고 자신의 삶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 쓴 산문집. 담담하고 막막했던 청년시절을 지나 알아가는 이 하나 없이 혼자 글을 써내던 문학청년기를 거쳐 맑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기까지 그의 소중한 추억들이 부드러운 문체 속에 녹아있다. <푸르메·1만1천 원>



▲18세기 조선의 기인열전-추재기이=18세기 조선의 저자거리 소문과 풍경을 담았다. 틀에서 벗어나 살아간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운을 맞춘 한시와 함께 일지매, 소설 낙동군 전기 수, 제주 여객 만터 등 평범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서해문집·9천500원>

**일가공인중개사**  
☎(대)234-8216 헨 011-600-0896 (광주주유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토지매매  
●전원주택  
●임야

**솔로몬공인중개사**  
여성 핵심요천지역  
☎(061)644-9644 헨 010-3999-2500 (광진 디엠 보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당빌딩에서 50m 지점. www.8588949.co.kr)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함  
●시의 농장부지 급히 구함  
●수익성 좋은 원룸

**국민공인중개사**  
헨 011-635-7939, 010-3114-6103 (두말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앞문 2층)  
●주말동 5억 평원외전매  
●799천 원 급매  
●13억 원 빌딩 20x10m 코너  
●상업지역 13억 빌딩  
●12억 원 빌딩 20x10m 코너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대) 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7억 5천 고시원 급매  
●12억 병천 의원용 건물 급매